

24년 2월 퇴직연금 레터,
24년 첫번째 리밸런싱

사랑하고 존경하는 파트너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늦었지만 멋진 24년 새해가 되시길 빌겠습니다.

SNS가 범람하는 현실로 인해 레터를 쓰는 것에 매우 신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라는 것이 발이 빠르다고 꼭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우리의 경험
치도, 움직임을 신중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 2월 벌어지고 있는 한국판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로 하여금 일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요구하고 있는 듯 합니다.

지난 23년 11월 저희는 23년 2분기에 이후 첫 포트폴리오 변경을 위한 레터를 작성해
서 파트너 고객님들께 안내를 드렸습니다.

핵심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3년 11월 시점에서 저희가 제안 드린 포트폴리오

1. 최대한 금리가 높은 예금형 상품 (증권금융예금, 기간 1~3년물) : 30%
2. 반도체 ETF : 20~35%
3. 은행 ETF : 10~30%
4. 증권 ETF : 10~30%

매우 단순하지만, 지금에 돌이켜보면 매우 시의적절한 포트폴리오였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포트폴리오는 약 3개월이 지난 시점 그 어떤 포트폴리오에 비해서도 높은 수익률
을 기록하면서 과거의 부진을 만회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위의 포트폴리오에 기반한 DC형 운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 1년 수익률이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오면서 수익률이 큰 폭으로 개선되는 것을 경
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상승은 우리로 하여금 경계감을 가지게 합니다.

항상 남들이 좋아할 때 삼가하고, 남들이 떨고 있을 때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이
투자에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판단을 바탕으로 저희는 포트폴리오를 소폭 변경하고자 합니다

24년 2월 퇴직연금 레터,
24년 첫번째 리밸런싱

1. 최대한 금리가 높은 예금형 상품 (증권금융예금 등. 기간도 1~3년짜리) 30%

2. 반도체ETF : 20~40%

3. 은행 ETF : 10~30%

4. 증권 ETF : 5~15%

이번 포트 변경의 핵심적인 골자는 배당 수익률이 하락한 **증권**을 줄이고
향후 산업 성장이 진행될 **반도체** 영역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최근 주가 상승으로 증권 ETF의 배당수익률은 3.5%미만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실현하고, 최근 수출 동향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반도체 회복에 규모
를 늘리는 방향의 투자를 제안드립니다.

항상 그렇지만, 저희는 투자하는데 있어 각자의 재량을 발휘할 공간을 만들어놓고
각자 추구하는 흐름에 따라 비중 조절을 하도록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위험 감수 성향에 따라서 이 부분을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상승을 확정짓고 싶으신 분들은 예금형 상품으로 추가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24년도엔 추가적인 복리 투자가 가능한 영역이라고 판단을 했기에
저희는 투자상품인 ETF에 비중을 크게 줄이지 않고 가는 방향성을 제안드립니다.

혹시 과거 보유하고 있던 지주사ETF를 그대로 보유하신 분들은 이번에 좀 더 지주사를
들고 갈 수 있을 듯합니다.

PBR이 중요한 국면에서는 지주사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
다.

저희가 퇴직연금을 시작한지는 이제 겨우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퇴직연금이 제대로 된 자리를 잡는데는

아직도 꽤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유 있게, 느긋하게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는 기본 전략은 변함없이 그대로 진행
하고자 합니다.

24년 2월 퇴직연금 레터,
24년 첫번째 리밸런싱

저희의 투자 걸음이 한 해 한 해 세월을 쌓아가고 있지만,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멋진 그림을 함께 그려나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중시각으로
박상준 올림

매트릭스 투자자문 대표
각도기 박상준 올림.